세화리가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. ‘괜찮아 게스트하우스’의 주소가 세화리 1-1이에요. 숙소는 해녀박물관 앞에 위치해 있고, 세화해수욕장까지 도보로 2분이면 갈 수 있어요. 조용히 휴식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. ‘괜찮아 게스트하우스’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숙소를 찾아보지도 않고 오셨다는 분들도 계셨어요. ‘이곳에 오셔서 지내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.’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. 맛있는 샌드위치와 함께 세화의 아침을 맞이해보세요.

"저는 서울에서 IT 관련 일을 했어요. 해외에 파견 나가 일하던 중에 갑자기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위해 사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순간 사표를 내고 그만뒀어요. 그리고 바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. 2013년 1월에 제주에 와서 1년을 돌아다니다가 세화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여기서 1년을 살다가 지금 이곳에 괜찮아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. 숙소 공간 하나하나를 모두 제가 엑셀로 직접 만들었고, 건축사가 그걸 보고 설계와 시공해주셨어요. 괜찮아 게스트하우스에서 편안하게 쉬다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. "

괜찮아 게스트하우스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7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-1

숙소의 특별한 점

• 세화리의 시작. 괜찮아 게스트하우스의 주소는 세화리 1-1이에요.

• 특별한 이름. 괜찮아 게스트하우스의 이름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.

• 편안한 휴식. 조용하게 사색하고 책을 읽으시거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어요.

이런 여행객에게 추천

• 조용한 휴식이 필요하신 분

• 올레길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

• 홀로 여행하시는 분

알아두면 좋은 사항

• 제주 국제공항에서 101번 버스로 한 번에 오실 수 있고, 세화 환승정류장에서 15분 정도 걸어오시면 되어요.

• 숙소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고 카페에서 드실 수 있어요.

• 부모님과 함께 온 중학생부터 이용하실 수 있어요.